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공모 선정

순창군, 192억규모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읍면사업 기반 조성

순창군이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신규공모사업에 총 14개 사업, 전체사업비 192억 규모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기초생활거점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민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경관·생태, 역사·문화, 농촌체험·소득자원을 특화한 소재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다. 특히 이번 공모

확정은 2008년 이후 일반농산어촌분야 군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예산 확보를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숙주 군수의 행보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2019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14개 사업은 △면소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적성, 유등, 풍산면 각 40억원, △북흥면 가인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20억원, △구림면 방화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원, △마을 자율개발사업 8개 마을(순창읍 복식, 인계 세룡, 동계 가작, 적성 지북, 유등 오교, 풍산 유정, 금과 고례, 쌍치 중앙) 각 5억원,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원

등 총 192억원 규모다. 이로써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육성 등 사업을 통해 전체 읍·면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다. 황숙주 군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어려운 우리지역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며, “확보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편의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물 오른 옥정호 마실길따라 함께 걸어요’

임실군, 9월 15일 천년전북천리길 걷기 행사

임실군, 오는 9월 15일 옥정호 마실길에서 천년전북천리길 걷기 문화행사를 주관한다. 옥정호 거목 녹조 물살얕던 옥정호 제모습 찾으며 가을관광객 맞이 한창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과 녹조까지 겹치면서 물살을 얕던 옥정호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가을맞이 관광객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임실군에 따르면 현재 섬진강댐 저수율은 47.7%로 예년대비 10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옥정호를 테마로 한 가을맞이 관광행사를 준비에 한창이다. 그 첫 행사로 오는 9월 15일 옥정호 마실길에서 천년전북천리길 걷기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행사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기행사는 국사봉을 출발해 요산공원, 임석리, 어리동을 거쳐 국사봉으로 돌아오는 6.5km구간의 마실길을 걷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의 자연생태와 역사, 유적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실군은 가을을 맞아 옥정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 인근 시설물 등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호수”라며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마실길 걷기 행사에 지역주민과 인근도시민 등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옥정호 마실길에서 심신을 달래시고, 인근 임실치즈테마파크에도 들려 유럽풍 관광지의 느낌도 받으시고, 다양한 치즈체험 즐기신다면 일석이조의 멋진 임실관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실길 걷기행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640-23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흥부제 기본계획 보고·추진방안 논의

남원흥부제추진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원시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6회 흥부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지난 28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석 제진위원장을 비롯한 흥부제추진위원회 남원시 행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흥부제 기본계획 보고와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26회 흥부제는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시민 화합과 나눔의 축제로 기획, 나눔행사, 기념행사, 공연, 연계행사 등 4개 분야 21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철(음력 9월 9일)인 10월 17일 인월과 아영에서 터울립과 고유제를 시작으로, 흥부가죽상, 시민의장 시상, 기념식,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그 외 흥부골남원농악경연대회, 남원예술제, 남원국제도예캠프, 금과 강도근 전국관소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올 흥부제는 인기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등 대중성을 강화한 야간공연이 펼쳐지며,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을 위한 흥부놀이터, 사자탈춤·서커스 마임 등을 공연할 예천

예술단 등이 시민들의 흥을 한층 돋울 것이다. 이밖에도 막걸리·추어탕 부스 및 푸드트럭 등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고, 시민과 함께 흥부정신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축제를 위해 각종 판매부스 수익금의 10%를 지역내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진석 제진위원장은 행사 관계자들에게 “올 흥부제는 시민이 화합하며 흥부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열린 소통 포럼 성료

남원시는 지난 28일 환파우 소리체험관에서 관광분야 주관해 관광분야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최근 5년간 지리산하르벨리,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남원예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환파우소리체험관 등 문화·관광·생태 시설을 구축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관광객의 니즈(need)를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남원여행이 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포럼은 장기적으로는 남원시가 보유한 문화·관광·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관광관련 민간업체 및 시민대표, 시 관광 및 관련 사업부서가 소통하고 토론하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 이현재 관광과장은 “관



관광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택시업계 경영난 타개 나서

임실군이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임실군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회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 및 감차 보상금을 상향 조정했으나, 과잉 공급된 택시와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익을 저하로 택시업계가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임실군의 택시는 총 70여대로 총량산정 결과 32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진두 부군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군민들의 택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과잉 공급된 택시를 계획에 맞춰 감차할 수 있도록 업계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취약아동 책놀이 프로그램

순창군이 9월부터 정서·행동 위기가아동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사고력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불안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독서지도사들이 가정방문해 독서토론회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시간씩 10회 진행되며 97명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독서지도사들은 주의력 결핍(ADHD) 등으로 인지발달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도 방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아동들의 상황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연결되도록 지도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둔다. 이선호 주민복지실장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며 “책을 매개로 아동의 인지발달은 물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 드림스타트에서는 24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사례관리 전 과정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수시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건 복지 보육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미생물활용 교육 실시

순창군이 29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미생물활용교육을 실시해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번 교육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주제로 김진원 전 예천군 농촌지도관이 맡았으며 30여명의 농가들이 참여해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실시해 농민들이 미생물 농업을 이해하고 실제 농사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습시간에는 미생물 활용 액비 만들기 등 다양한 기술이 전수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농업인들이 좀 더 미생물을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고, 많은 농가가 미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